

불변하는 언약
(히13:8)

◆서론

•타성에 믿는 예수 말고 편한예수, 쉬운 예수를 믿자. 제가 지금 실감난다. 제가 74살인데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다. 작년에도 설교할 때 염려가 안된다. 신기하다. 우리가 불변하는 언약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용쓸 것이 있는가? 정말 왜 쉬운 예수를 어렵게 믿으려는가? 성경을 보라. 참 쉬운예수다. 아침에 기도하면 하루가 기쁘고 편안하다. 그리고 주님이 하루를 엮어가신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산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스스로 주의 뜻대로 못산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스스로가 존재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사는 존재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병들어버렸다. 죄와 저주속에서 망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남으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땅은 주님이 만들었다.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후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잘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 기도가 좋아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좋았다. 전부 나의 축복의 약속이고 성취가 된다. 하나님이 엮는 삶을 사니까 가정도 삶도 좋다. 우리 한국교회 나이가 70살이 되면 힘들어 목회를 못한다. 계속 사람에게 시달린다. 가정도 부부가 같이 살기 힘들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 불신자를 보니까 불쌍하더라. 왜냐? 하나님 못만나 저주 가운데 살려니 얼마나 힘들까? 신앙생활이 쉬운데 각인된 것 때문에 힘들게 산다. 전도사 만나 저는 대박이다. 계속 들으니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우리는 원래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본인이 저주니 관계된 것 모두 저주다. 늘 사단의 노예생활 세상의 포로로 자기 인생이 없다. 인생을 30년 살아보니 이런 인생 살 필요 없다 생각했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 참 감사한 인생을 산다. 언제 저를 전도한 아주머니를 찾을 생각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제가 방향을 할 때 이 아주머니가“아저씨 인생 왜 그렇게 살아요?”라고 물었다. 제가 “아주머니 전 맛이간 사람입니다”라 말했다.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우리교회 장로가 깡패여서 자기 부인은 개패듯이 뺐는데 어느날 부인따라 교회를 갔는데 양과같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 한마디에 걸려들었다. “내가 왜이런가?”, “나는 대학까지 나와 이게 무슨꼴인가?” 도데체 이해가 안되었다. 그래서 그 장로 만나 물어봤다.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은혜받으니 변했다하더라. 또 본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저는 예수를 진짜믿는 사람을 구경을 해봤다. 다르다. 지금 저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가짜로 예수를 믿는지 보면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세계가 다르더라. 내 자신은 이미 바뀌었고 거듭나 새사람이 되었다. 예전 사람이 아니다. 생각과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했다. 예수믿는 존재 자체가 거듭나 새사람 되었고 선한일에 지음바 되었다. 생각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바뀌면서 성경으로 기도로 은혜속으로 자꾸 들어갔다. 저는 놀랐다. 예수를 50-60년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왜저렇게 하는가? 금년은 편하게 믿자. 행복하게 쉽게 믿자. 복잡한 것 없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다끝났다는 것을 말한다. 잘할 필요도 없다. 완벽히 끝났다. 성경을 볼 수 록 손덜 것이 없다. 인생도 가정도 목회도 없다. 그분께서 다 엮어나간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1순위가 말씀 기도속

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도전 속으로 들어간다. 히11장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보좌에서 나를 책임 지신다. 이것을 봤다.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이 내가 믿어지더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없는 가운데 믿어진다.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안 믿어진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냈다. 죄, 사단 다 끝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있지 않다. 주 안에 있다. 주안은 하나님 품이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의 품을 느꼈다. 주님의 품이 그 품안에 들어간 기분이더라. 24시간 복음 들으면 전략은 되게 되어있다. 신년에 가장 편안한 예수를 믿자. 쉽게 사는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 존재가 복의 근원이고 내 존재가 유업을 이을자다. 저는 주인의식이 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르다. 히11장 인물들 같이 사실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길 바란다. 내 열심히 믿는다 해서 안된다.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는 단계가 말씀과 기도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방해한다. 사람 끊고 미디어 끊으면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은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사단이 방해한다. 세상을 쳐다봐라 전부 낙심, 불신앙, 걱정을 하고다닌다. 주님 품안에 방주안에 있자. 세상은 불신자들 세상이다. 금년에 쉽게사는 비밀은 하늘 나라, 보좌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것을 누려야 한다. 왕되신 그리스도가 돕는 천사를 보내고 미션을 주신다. 미션을 하나님에게 받아야 한다. 저는 늘 미션을 받았다. 목회 개척에 대한 미션을 받았다. 저는 도전하고 따라갔다. 우리는 우리안에 주님이 내 인생을 엮는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한다. 창1:27-28. 우리는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다. 그런데 고작 가정 꾸리고 자녀만 키우고 살 것인가? 여전히 육신적인 세속적인것에 매여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등한시하고 세상을 쳐다보고, 쳐다보면 멸망한다. 자녀를 마음에 담으면 자녀가 늘 걱정이 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히11장 인물처럼 실상을 믿는 성도가 되자. 그러면서 가정 쉬운 것.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제자찾고 머리둘 곳 없이 다니시며 말씀운동하셨다. 이것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것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내 안에 당신이 일하신다 말을 하셨다. 그리고 사도들도 보니까 사도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14장에 하나님이 나를 세밀이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봤다. 그러니 구역장으로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주시고 가르치시고 목회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가르치더라. 지금 목회를 편하게 한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부교회는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각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부교역자를 많이 키웠다. 이것을 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엮는 분은 성령이다. 세밀히 인도하신다.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주인되신다. 개인, 가정, 사업의 주인이다. 그런데 주안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 안되어있다는 것이다. 기도가 시간이 많이걸리는가? 좀 일찍나와 기도하면 힘나는데 못한다. 퇴근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해봐라. 가장 쉬운 것이 말씀과 기도다. 말씀을 들으면 참 행복하다.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사단은 막는다. 말씀을 들으면 사업, 정치에 대해 다 나온다. 저는 누군가랑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 다 나온다. 영으로만 알 수 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세밀이 인도하신다.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전세계를 뛰어야겠다는 꿈이 있다. 어린이 집을 위시해서 전세계 밀바닥부터 바꿀 것을 그리고 있다. 지금 아이들이 문화로 미디어로 인해 다 무너지고 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늦는다. 밀바닥부터 바꿔야 된다. 주 안에서 중요한 것은 애쓰지 말고, 거룩히 하려 말고 은혜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결론 다 끝났다. 우리는 실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늘 제자를 찾고 치유하고 말씀 운동을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통해 공생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4복음서다. 그래서 올해는 올인이다. 올해부터 전도학교를 제가 시작한다. 교역자, 장로님들은 전도학교로 뛰어가고 전성도들 3오늘로 엮을 것이다.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말씀운동 기도 운동하면서면 개인화를 도울 것이다. 동부교회는 전부 같이 갈 것이다. 세상, 사람 다 변한다. 이대로 가면 썩대밭이 된다. 지금 이 시대 어른들이 지나면 아이들은 대책이 없다. 이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자. 한가족같은 교회가 되자. 절대 안변하는 것 세가지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실상', '성령' 이 세가지는 안 변한다. 이 세가지 언약 속에서 도전하면서 재 창조가 일이 일어나길 축원한다.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자.

항목	내 용
주간 내게 주신 말씀	
응답 받을 주간 기도 제목	
주간 실천 전도 내용	